

## 회칙반포 40 주년 William Wicks, OFS

필자는 바오로 6 세가 1978 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을 인준한지 4 년째 되는 해에 서약을 했다. 그 때는 “새” 회칙이었지만, 40 년이 지났으니 이제 “새”회칙이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는 현대화(변화)의 정신이 휩쓸고 있을 때였고 평신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때였고 요한 23 세 말씀대로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때” 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재속 3 회원에게 새로운 생활 양식이 필요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새로운 회칙의 필요성:**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날때 쯤 세계형제회 총봉사자는 세계형제회 영적보조자들에게 “현대의 변화하는 상황에”에 맞는 3 회원을 위한 새 회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회칙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1966 년 3 월 9 일에 시작되어 장장 12 년이나 걸렸다. 우선 세계형제회 영적보조자들은 각급 형제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설문지를 보내면서 “모든 관구, 형제회는 수도자, 성직자는 물론 평신도들도 회칙을 검토하거나 수정할 데 대한 그들의 의견과 건의, 희망사항을 자유롭게 피력”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두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 첫째는 회칙제정에 처음으로 평신도[3 회원]가 참여하게된 점이고 두번째로는 “이미 존재하는 소위 (레오)회칙을 검토하고 시대에 맞게 필요한대로 수정한다는 점” 이다. 그러나 일이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다.

**형제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정리 하는 일:**형제회에 대한 설문조사는 수도회관구에서 수집, 집계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계영적보조자들에게 권고안을 보냈고, 그들이 논의하여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주요요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복음생활
- 성 프란치스코와 완전한 일치
- 프란치스코 가족의 상호간 일치
- 재속의 영성
- 형제회의 도움
- 형제회로의 개별적인 부르심
- 그 형제회에 교회가 인정하는 서약을 함.
- 나를 온전히 교회와 세상의 처분에 맡김.

**새 회칙 초안:** 원래는 회칙이 없는 상태에서 회칙을 만들거나 레오회칙과는 별도로 새 회칙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레오회칙을 수정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보내 온 편지와 건의를 토대로 1968 년 7 월에 회칙초안이 작성되었다. 미국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10 월에 모여 그 초안을 분석

평가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초안은 너무 이상적이” 라하고, 또 다른 사람은 “3 회의 사명 대한 언급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첫번째 초안에 대한 반응은 실망이 아니면 전적인 배격으로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었다.

**평신도가 직접참여할 필요성:** 결국 성령의 이끄심으로 세계형제회 영적보조자들은 관구봉사자들에게 보낸 편지 2 항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회칙의 구조를 검토하기위하여 평신도 프란치스칸의 모임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임은 1969 년 10 월 5 일 부터 11 일까지 아씨시에 있는 포르지웅콜라 성당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후 이 모임은 아씨시 대회라고 알려졌다.

**초안의 실험적인 적용:** 그러는 동안 수정된 초안이 몇몇 나라에서 시험적으로 적용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로 구성된 북미연합은 시험적인 회칙을 작성하여 세계형제회 총봉사자로부터 북미지역에서 이를 적용할 것을 허락받고 실제로 실행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찬반이 교차했다. 아직 레오회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회원은 이렇게 그들의 불만을 나타냈다. “북미지역에서 시험적용하기로 로마의 인준을 받기는 했지만 이 생활양식은 권위도 없고 구속력도 없다. 신학자에게는 훌륭한 내용이겠지만 뭔가 실생활에 도움이되는 것을 원하는 평범한 주부나 노동자들에게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초보자는 물론 심지어 경험 많은 양성동반자에게도 어려운 내용이다.” 같길이 아직도 멀어 보였다.

**1969 년도 아씨시 대회:** 세계형제회 서기는 전 세계 각급 프란치스코회의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을 9 월 27 일 부터 10 월 3 일 까지 일주일간 아씨시에 소집하였다. 세계 도처에서 3 회를 대표하는 재속회원 25 명이 모였고 이들은 5 개 언어권으로 나뉘어 있었다. (영어권 대표들은 아래 사진을 보라). 세계의 분과가 구성되었고 프란치스칸 영성의 주요요소를 담당할 제 2 분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17 개항은 내어 놓았다. 이 17 개항은 새 회칙의 최종안을 작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1.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따른 복음생활
2. 중단없는 회개(변화)
3. 모든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과 형제자매로서의 삶
4.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
5.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름
6. 교회의 삶과 사명을 같이 함
7.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함
8. 평화의 도구가 됨
9. 기도생활(개인적, 공동체적, 전례적)
10. 기쁨안의 삶
11. 재속성
12. 아버지께로 가는 순례의 길
13. 평신도 사도직 참여
14. 소외된 이들에게 봉사
15. .교회의 봉사자들과 대화와 협력의 태도로 교회에 충실.

- 16. 성령의 활동에 열린 마음
- 17. 단순, 겸손, 작음

이 17 개항의 주요요소는 아래 열거한대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성격을 정의한다.

- 1. 복음을 살것(1, 4, 5, 14)
- 2. 프란치스코를 따를 것(1, 3, 4, 5, 8, 10, 15, 17)
- 3. 변화를 통해(2, 4, 5, 7, 9, 12, 16)
- 4. 재속인으로서 (3, 4, 6, 7, 9, 13, 15)
- 5. 공동체 안에서 (3, 6, 8, 11, 13, 14)
- 6. 모든 프란치코 식구와 일치하는 삶 (3, 6)

성인의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회칙에 넣다: 회칙이 완성되기 직전에 카예탄 에셀이란 사람이 우연히 볼테라에 있는 가르나치 도서관에서 프란치스코의 글을 발견했는데,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것은 삶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따르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글에 카예탄은 “신자들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오히려 프란치스코가 초기 “회개하는 형제들에게 준 권고”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와 함께 복음생활을 하고 싶어했다. 이 편지는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의 머리말이 되었다. 보나벤퉁 대학에 제출한 바오로 회칙에 대한 박사논문에서 로버트 스투어트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하여 회칙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오로 6 세가 새 회칙을 인준하고 공포하다:** 회칙은 몇번의 개정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성청 수도회 관할부서에 제출되었고, 그 곳에서 심사해 몇군데 고친 후 바티칸 국무성 장관 빌로트를 거쳐 교황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여러 프란치스코가족이 12 년 간의 작업끝에 “새” 회칙은 1978 년 6 월 24 일에 교황 바오로 6 세가 어부의 반지로 날인하여 인준하고 공포하였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 “새”회칙을 기쁘게 승인하리라 믿는다. 회칙 4 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회원은 특별히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씨의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살고 전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아씨의 초기 회개하는 형제들의 후예인 우리도 회칙에 관해서는 복음을 살고 전하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

참고도서

Wicks, William, SFO, A Histor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in the United States, Volume IIA, 1943-1978, Smoky Valley Printing, Lindsborg, KS, 2010  
 Stewart, Robert M, O.F.M., The Rule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Origins, Development, Interpretation; Instituto Dei Cappuccino, Roma, 1991.



b

1969 년 10 월 아씨시 대회  
영어권 대표

뒤줄: 에드워드 쉬버스(영국); 톰 리카르드(미국)

앞줄: 이렌스 오설리반(호주); 왈리 퇴백(미국)

폼 페파니스(캐나다); 프랑크 쿠하와(미국)

# PAVLVS PP. VI

## Ad perpetuam rei memoriam

**S**ynarchicus Patriarcha, Sanctus Franciscus Assisienis, dum vitam agebat et post pretiosam merem, non solum permultos alliciebat, qui in religioza a se condita familia Deo deservirent, sed etiam plurimos laicos adduxit, ut ipsius inscripta, quantum in mundo fieri poteret, obirent. Etenim, ut verbis utamur Qui XI, Decretis Nostris, "videatur... nullus fuisse, in quo Christi Domini imago et evangelica vivendi forma similior, quam in Francisco, atque expressior eluxerit. Propterea, qui se ipse appellavit magni Regis Graecorum, idem recte alter Christus nuncupatur - et, quod se quasi reviviscentem Christum aequalium suorum societati et saeculis praestitit futuris: unde consecutus, ut is vivat hodie ante oculos hominum in omni saeculo sit posteritatem" (Lit. Encycl. Rite expletis, 30 April. 1920; A. A. S., XVIII, 1920, p. 104). Lactamur sane quod "charisma Franciscanum" hac ipsa aetate, qua tot sermone doctrinae placita, tot propensionis aluntur, quae animos a Deo rebuzque supernis aballemant, adhuc irruerit in bonum Ecclesiae humanaeque consortionis. Laudabili ergo studio sociague opera quattuor Ordines Franciscanos per decennii spatium sumi amisti, ut novam Regulam Tertii Ordinis Saecularis sui, ut nunc appellatur, Ordinis Franciscani Saecularis elaborarent. Id enim necessarium visum est ob mutatas temporum condiciones et propterea quod Concilium Oecumenicum Vaticanum, Secundum praecipua rationesque, ad rem pertinentia, salubriter edidit. Praeque dilecti filii Ministri Generales quattuor Ordinum Franciscanorum preces Nobis adhibuerunt, ut de sanctionem, Regulam proberemus. Nos vero, exempla quorundam Decretorum Nostrorum secuti, ex quibus Leo VIII id postremo praestitit, huiusmodi postulacionibus libenti animo obsecundare decrevimus. Quae cum ita sint, Nos, fore confisi, ut vitae forma, ab admirabili illo Viri Assisienti praedicata, nova quaedam impulsione praestare floreat et vigeat, e consilio Sacrae Congregationis pro Religiosis et Institutis Saecularibus, quae de exemplo illi proposito diligenter cognovit, omnibus attente perpenis, certa scientia et matura deliberatione Nostra atque Apostolicae potestatis plenitudine, hanc Litterarum vi, Regulam Ordinis Franciscani Saecularis approbamus et confirmamus eique Apostolicae sanctionis robur adicimus, dummodo conveniat cum exemplo, quod in tabulario eiusdem Sacrae Congregationis pro Religiosis et Institutis Saecularibus auctoritate, cuiusque prima verba sunt "Inter spirituales familias", extrema vero "ad normam Congregationum, tenenda". Hisce simul Litteris, et auctoritate Nostra abrogamus priorem Regulam Tertii Ordinis Franciscani Saecularis, qui dicebatur. Statuimus denique, ut hae Litterae firmas sint iugue effectus nunc et in posterum plene consequantur: contra riu quibuslibet nihil obstantibus. Datum Romae, apud Sanctum Petrum, sub anulo Piscatoris, die XXIV mensis Junii, anno MCMLXXVIII, Pontificatus Nostris sexto decimo.

+ Joannes Cardinalis Villot  
Secretarius Status

